

2021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대학생부문

청년 창업공간의 운영방향 연구

- 서울시 은평구 창업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

A Research on the Management Direction of Youth Startup Facilities

- Focused on a Startup Facilities in Eunpyeong-gu, Seoul -

Abstract

Recently, the youth employment rate in Korea has continued to decline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and has begun to emerge as the biggest social problem. The government is trying to adopt youth start-ups as a solution to problems and establish various policies for them. Thus,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youth start-up space by conducting a theoretical study through prior research and conducting an on-site survey of youth start-up space in Eunpyeong-gu, Seoul. Through the study, the youth start-up space not only supports the physical environment, but also needs to establish various programs to enhance creativity of founders and share ideas with each oth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youth start-up space that can coexist with the region through the youth start-up support project.

키워드 : 청년 창업공간, 창업지원센터, 지속가능성, 운영, 관리

Keywords : Youth Start-up Facilities, Start-up Support Center, Sustainability, Management, Maintenan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국내 청년 취업률은 경기침체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율을 보이며, 가장 큰 사회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청년창업을 하나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인 정부는 관계 부처 협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사업화, R&D, 교육, 시설·공간 등의 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창업을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도 청년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기존의 창업정책을 세분화하여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부는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유형별 창업공간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기존 청년몰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한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공공 유휴시설을 이용한 창업

공간 조성사업, 창업 허브 신설, 대학과의 상생을 통한 캠퍼스 타운 운영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 창업공간을 신설하였으며,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의 도전을 돌려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은평구의 청년창업공간 지원 정책의 종류, 운영 주체와 세부 지원사항 등을 분석하여 사업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공간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계획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은평구 창업공간의 사례를 앞으로의 청년창업공간의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선행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기존 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2장에서는 청년 창업공간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은평구에서의 의미하는 청년 창업공간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3장에서는 은평구 창업공간의 유형을 살펴보고, 각 사업의 주체, 성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결과를 통해 청년창업공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분석하였고, 마지막 장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통해 지속적인 청년 창업공간 시설에 대한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연구와 현장 답사를 통해 은평구 내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을 조사 분석하였다.

* 숭실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부생

** 숭실대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Hae-Yeon Yoo, School of Architecture, Soongsil Universit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06978 South Korea. E-mail: yoojim@ssu.ac.kr)

이 연구는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이
며, 과제번호: NRF-2020R1A2C1006354

1.3 선행연구

청년창업이 활성화되고,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청년 창업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각 청년창업자가 느끼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Byeon & Sung(2013)와 Ro et al.(2017)의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¹⁾

2가지의 연구를 중심으로 청년창업 공간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Kang & Park(2015)와 Kang & Han(2019)의 연구를 통해 개선 방향성을 확인하였다.²⁾

선행연구를 통해 청년창업자들이 현재 진행되어 오고 있는 공간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청년창업공간은 단순한 공간지원 사업이 아닌 지역과 상생하여 새로운 창업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국지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창업공간을 분석했다는 것과 각 사업 공간의 한계를 통해 창업공간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기 위한 공간운영의 방향성을 제안했다는 것에 본 연구는 청년창업공간 연구 대한 공간적 범위 및 연구 방법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 청년창업 공간의 이론적 고찰

정부 지원사업 중 창업공간에 대한 지원은 창업 보육센터 지원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은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설립되면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가속화 하기 시작했다. 자금 운용, 투자, 판로개척 등의 다양한 조례를 조성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신설하였다. ‘창업보육센

1) Byeon & Sung(2013)은 중요도-성취도분석(IPA) 기법을 이용하여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청년창업자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창업자 중 대부분분이 시설 및 공간 임대료에 관한 정책에 대해 정도와는 짐승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생각하며, 청년창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Ro et al.(2017)는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공간 구성별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공간을 업무공간과 주거 공간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는데, 응답자들은 개인 업무공간은 프라이버시의 보장이 필요하지만, 공유공간을 조성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Kang&Park(2015)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발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창업 활성화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청년 창업지원센터의 공간디자인 발전 방향성을 연구하였다.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창업공간은 청년창업자들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교류, 협업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창업 비즈니스 상생 모델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공간특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Kang & Han(2019)은 대학 창업지원 사업인 캠퍼스 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창업공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청년 창업공간과 지역민이 서로 협력한다면, 캠퍼스 타운등의 창업공간이 지역 문화 활성화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대학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창업 육성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총 명칭³⁾으로, 창업지원센터, 창업 플러스센터, 창업카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예비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공간지원을 제공하였다.

공간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먼저 청년 실업률의 감소와 창업공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5년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법 시행령 제 5조의 4 “창업 촉진 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 창업자 등의 범위” 항목을 신설하였다. 해당 법령에서 예비 청년 창업자와 청년창업자의 연령이 39세 이하로 제정하면서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공간 또한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공간은 세종시의 청년창업 체리지랩과 시제품 제작소, 경기도의 경기 창업허브, 충남 창업마루 나비와 마을창고 사업 등이 있다.

정부 주도의 여러 지원시설이 청년층을 위한 창업지원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과 공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예비창업자와 청년창업자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이 대부분인 현실이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은평구 내에서 청년 창업공간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은평구는 2016년 은평구 내 청년 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 중 제2조 5항에서 청년시설을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청년 정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성된 모든 시설로 정의하였다. 또한, 2019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 2조를 살펴보면 3항에서 청년을 은평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제5항에서 창업지원센터를 은평구가 창업자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설비로 정의하였다. 각 조례의 항목들을 통해 본연구에서 은평구 내 청년창업 공간이란 ‘은평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자발적인 창업 활동을 끌어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 시설’로 정의하였다.

3. 은평구 내 청년 창업공간 지원제도 현황

3.1 은평구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의 배경

은평구는 2002년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운용해왔다. 2008년부터는 소자본 창업 강좌 등을 통해 구민에게 기업가정신, 사업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상권분석, 마케팅 방향 등, 창업 시 필요한 지식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2011년 ‘은평구 희망 일자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2014년까지 공공 및 민간 부분 일자리 45,000여 개를 창출, 고용률 63.7%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기도 하였다.⁴⁾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 7항.

4) 김민자, “2014년까지 4만 5천여 개 일자리 창출.”, 서울타임

시니어 창업정책을 주로 운용하던 은평구는 2016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 사업을 시작으로 청년 일자리 형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청년지원팀 부서를 신설하고, 청년기본조례를 신설하는 등 청년층을 위한 행보를 지속해 왔다. 2017년 구민 약속 10대 핵심사업 중 청년 지원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창업지원, 청년 네트워크 조성,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청년 전용공간 조성, 금융부채클리닉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3.2 유형별 특징 분석

본 연구는 은평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지원 사업 중 창업공간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은평구 내에서 운영하는 창업공간은 현재 4가지 종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창업발전소

창업발전소는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이다. 은평구 캠퍼스타운의 사업명칭은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사업’으로, 입주한 창업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리빙랩 형태의 창업공간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년 이내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창업·창직 육성이라는 사업목표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 운영 체계



창업발전소는 기존 시행되었던 단순한 사무 공간지원 뿐만 아니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팀을 발굴하고, 창업 고도화 지원 전문프로그램(멘토링, 전문교육 등),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 결과 창업발전소 2개소 추가 설립, 우수 예비 스타트업 총 42개 팀 선발(2020년 24팀, 2021년 추가 18팀), 23개 社의 사업화 지원금 확보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현재 창업발전소는 2020년 5월 기준 20개의 청년창업팀이 상주 및 근무하고 있으며, 은평구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운영 예정이다.

스, 2011.01.03., http://www.seoul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_no=4198(2021-09-02)

창업발전소의 한계점은 창업발전소 입주기업의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나타난다. 입주기업 20개를 업종별로 분류하였을 때 모바일 App(4), ICT(5), IT(2), 소셜서비스(2), 제조업(1), 교육(1), 패션(1), 예비창업(4)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창업발전소 입주기업의 절반 이상이 IT 관련 창업기업을 나타내고 있으며, 창업 준비 과정에 있는 예비자들을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IT&플랫폼 기반 창업뿐만 아닌 제조산업 등의 여러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장비와 공간형성 등의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새싹점포

새싹점포는 은평구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이다. 2018년부터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은평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1년간의 임차료와 시설 인테리어 공사비, 사업자등록과 마케팅 홍보, 교육 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새싹점포는 녹번로 및 응암동 일대의 빈 점포 공간을 지원하며, 모집 신청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한다. 현재 새싹점포는 개별점포 11개, 집합점포 4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침체 된 골목 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부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창업지원을 위한 전용공간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매입 및 임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기존 목표였던 골목 상권 형성이라는 목표와 다르게 공간을 응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3) 청년 창업인의 집

청년 창업인의 집은 서울시 SH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추진된 청년 주거 시설 임대 사업이다.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인구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자격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 최장 6년) 2017년 14세대 거주 규모의 1호점, 2018년 18세대 규모의 2호점을 개소하여 2021년 1월 기준 총 31세대의 청년 창업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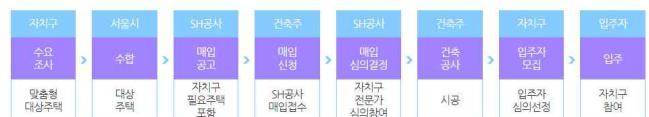


그림2. 청년 창업인의 집 사업 진행 체계

출처: 은평구청(<https://www.ep.go.kr/>)

청년 창업인의 집은 청년창업자들의 주거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SH공사에서 해당 자치구 내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을 진행 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공간에 대한 지원 방향은 명확하나, 개인 작업 공간이나 창업자들 간의 정보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은평오랑 - 꿈자람센터

오랑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센터로 2020년 은평구, 마포구, 노원구 등 총 9개소의 공간 신설로 시작된 사업이다. 오랑 사업의 목표는 청년을 위한 ‘공간’ 지원과 청년 정책 전담인력의 배치를 통해 청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통찰하고, 청년의 삶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은평구 및 주변 지역 청년들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은평오랑에는 총 6명의 청년지원 매니저가 상주하여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무실인 꿈자람센터를 운영하여 은평구 내 청년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오랑 공간지원 사업은 창업지원 사업을 제외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함께 운용하여 청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청년층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창업을 전담하는 공간의 규모가 작아(기업당 최대 2석) 수용 업체에 제한이 있고 장비 운용 등의 제약사항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4. 청년 창업공간 사업 분석의 의의와 시사점

은평구 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공간을 종합해 본 결과 표1와 같다.

표1. 은평구 내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 정리

사업명	사업 주체	사업대상	주요 지원 내용
창업 발전소	상명대학	서울시 소재 5년 이내 창업기업이나 예비창업자, 학생 창업자	사무 공간 지원 창업 공모전 진행 및 유망 스타트업 발굴 추진
새싹 점포	은평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사업가	소상공인 대상 점포 임대료 지원 및 관련 교육 제공
청년 창업인의 집	서울 SH공사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및 예비창업자	주거 공간지원
은평오랑 꿈자람 센터	서울시	기업 임원 중 60% 이상 또는 기업 구성원 전체 비율 중 70% 이상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인원으로 구성된 기업	사무 공간 지원 및 청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청년 정책 전문가 상주 및 컨설팅 제공

현장 사례를 통해 은평구는 청년창업자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간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사무 및 주거 등의 물리적인 공간을 지원하는데 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 창업공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5. 결론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정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들의 신설되어, 자금 운용, 마케팅, R&D, 판로개척 등의 형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창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지원 사업들은 각 사업별 대상에 대한 명확성 부족, 창업자의 업종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 구성의 부족, 지원 공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의 시작 방향은 있으나, 해당 공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지원 기간 등의 방향성은 명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은평구 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공간 지원사업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청년창업공간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은평오랑의 경우, 청년창업만을 전담으로 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여가 문화 지원, 기술특강, 사회공헌 서포터즈 운영, 청년 공유 커뮤니티 지원 등, 청년창업자들에게 부가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함께 운영되며, 청년 정책 전문가가 항상 상주하여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창업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지원하는 것만 아니라, 청년창업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의 운영 방안과 창업공간이 위치한 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창업공간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청년 창업공간을 지속해서 운영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이론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해 도출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별 운영하는 창업공간의 유형과 대상, 예산 등의 지원 요소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교가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어 추후 후속 연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강철희 & 박여진, 청년 창업지원센터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 2015, 43-46.
2. 변충규 & 성창수,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3):1-15.
3. 노승한, 장수진, 김진영, 김도년, 창업자들의 창업공간 구성과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 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통권 제18권 제6호 (2017):109-124
4. 강현지 & 한혜련, 플랫폼의 구성을 적용한 캠퍼스타운 공간 구성 - 캠퍼스타운의 발전 사업 중 창업육성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통권 제21권 제3호 (2019):141-146.
5. 김민자, “2014년까지 4만 5천여 개 일자리 창출.”, 서울타임스, 2011.01.03., <http://www.seoultimes.net/news/>
6. 서울 캠퍼스타운, <https://campustown.seoul.go.kr/>
7. 은평구청 홈페이지, <https://www.ep.go.kr/>
8. 서울시 청년센터 오랑, <https://youth.seoul.go.kr/orang/>